

# Frontier

## KAIST Management Update



## Homecoming Day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대 동창회장  
장석권 교수(한양대학교)

### CONTENTS

- 2 나침반  
이진주 대학원장  
3 특별기고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4~7 테크노경영대학원 소식  
동창회 출범과 KAIST 경영교육  
의 뿌리 찾기...

- 10~11 교수칼럼  
이규성 교수  
12 인터넷 핫 사이트  
인터넷경매의 선두주자들  
13~15 Management Tips  
가치경영 한인구 교수  
환경경영 이승규 교수  
지식경영 김영걸 교수  
16 신규프로그램 소개  
GLCP

- 17 동문기업탐방  
(하나로 통신) 윤경립 이사  
18 연구실 소개  
김영배 교수 연구실  
19~21 테크노가족 I, II, III  
22~23 알림란  
AIM소식  
AVM소식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1999 SUMMER Vol.3 No.3 (통권8호)  
발행일 1999년 7월 1일  
발행인 이진주  
편집인 김영걸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TEL 02) 958-3246  
FAX 02) 958-3010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263-7534



# [www.shoppoint.co.kr](http://www.shoppoint.co.kr)

“Smart shopping for smart people”

# Click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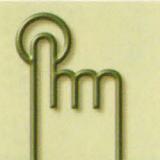
명문 인터넷 쇼핑몰의 세계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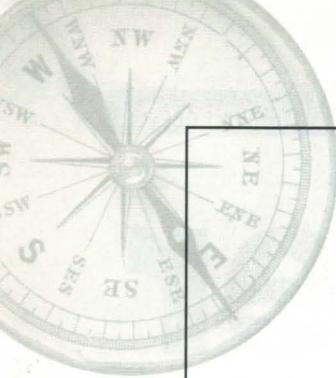
LG유통이 운영하는 SHOPPOINT는 일반고객과 기업고객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입니다.

국내 종합쇼핑몰 최초로 인터넷 공개입찰, 기업자원관리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제 1회 대한민국 우수사이버몰 평가에서 종합사이버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HOPPOiNT의 One-Click에는 고객가치에 대한 도전의식과  
인터넷 쇼핑몰의 명가를 추구하는 정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LG유통**





## 글로벌 스탠더드와 문화적 갈등

테크노경영대학원장  
李 軫 周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연결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법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힘의 논리에 의한 아메리칸 스탠더드라고 폄하(貶下)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일본의 어느 경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내법의 55%가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었다고 한다.

『천민자본주의』의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IMF체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내용을 주류로 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상세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투명경영, 고객 및 시장위주의 사고방식, 가족주의 문화를 배척하는 성과주의, 문화적 개방성과 진취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가 우리 나라와 같이 오너라고 불리우는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가 포함되어 사외 이사가 경영감시를 철저히 하고 정책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집단 소송제도가 용이하게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투명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둘째, 소비자 및 고객위주의 사고방식이 강화되어 고객만족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영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보상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치체계에 대해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성과주의의 시장문화를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제품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로 평가받고, 기업가치는 외형적 매출규모가 아니라 수익으로 평가되며 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부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종업원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에 의한 연봉제로 평가되며,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문화적 진취성과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영에서는 인종, 국적을 따지지 않는 자세와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지적 재산권, 문화예술 등에 대한 관심과 세계수준의 교양인으로서의 기본예절과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경영을 하기 위해 우리 나라 경영자들은 앞으로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경영과 부패 라운드에 대비하여 오너와 규제당국자와의 새로운 관행과 관계정립에 부심(腐心)하면서 책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익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형성장에 집착하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수익중심의 가치창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21세기 경영 방식은 경영자들의 의식혁신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혁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영자로서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남성주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글로벌 현장에서 성적희롱, 인종차별 등 법적 책임을 크게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이 과거 1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큰 곤욕을 치룬 바 있고, 우리 나라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세련되지 못한 처신으로 경영실패까지 몰고 온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결핏하면 일본의 저질성을 비판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그들보다 나은지에 대한 냉철한 반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참다운 뜻에 충실해진다면, 김구 선생이 일찍이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셨던 문화강국(文化強國)의 꿈이 글로벌 경영에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의 길

정보통신부 장관  
남 궁 석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된 서구의 산업화는 1770년 카트라이트의 방적기계 발명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1858년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868년 메이지 유신과 산업화를 통해 부국강병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업화 시기를 1960년 이후로 볼 때, 서구와는 200년 차이가 있으며 일본과는 100년의 시간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의 힘이 동력(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면 정보화의 힘은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정보기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지금까지 인간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생활의 기본적 요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땅 만을 의미하던 공간개념이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두 개의 우주를 나타내게 되었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24시간이 낮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누구나가 빛의 속도를 이용함으로써 속도개념도 바뀌게 되었다.

생활의 기본요소를 기존의 개념에서 변화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기술을 인터넷이라는 이름의 전자불도저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최근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이를 전자불도저란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부 수백명이 며칠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단숨에 해치우는 불도저처럼, 업무에 도입되는 정보 인프라도 과거에 비해 수십, 수백배의 효율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MIT대학의 도노반 교수는 앞으로 인터넷을 새로운 우주의 생활방식으로 채택하는 개인과 기업, 국가는 발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는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터넷이 새로운 우주로의 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자기 나라의 지식과 문화를 수집, 가공, 재편집하여 인터넷 상에 올려 놓지 못하면 문화의 속국이 될 것이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비상처럼 잡종문화의 소나기를 역류해서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할 것이다. 지식과 문화의 수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입국이 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지식, 정보, 문화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화는 재정이 있으면 하고 부족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21세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필수사항인 것이다.

## 테크노경영대학원 동창회 결성 및 Homecoming 행사 개최

- 초대 동창회장에 한양대 장석권 교수 선출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KAIST 서울캠퍼스 SUPEX경영관에서 동문 유대강화 및 학교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동창회 결성 및 Homecoming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73년 이후 KAIST의 경영관련 학과를 졸업한 모든 동문들(경영공학/경영과학/경영정책학과/산업경영학과/경영정보공학과/MBA과정/현재 테크노경영 대학원에 지도교수가 있는 산업공학과 출신의 동문들)과 재학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등록을 마친 동문들은 석사과정 도우미 학생들의 안내를 받으며, SUPEX 경영관의 새로운 시설들을 견학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새로 증축된 5층의 최종현홀에서 한민희 교수의 사회로 전체모임이 진행되었는데, 이진주 대학원장의 인사, 김재철 부대학

원장의 테크노경영대학원 발전현황 및 비전소개, 교수진 소개, 동창회 결성 및 회장과 임원선출이 있었다. 초대 동창회장으로는 장석권 교수(한양대학교), 총무는 김영배 교수(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감사는 강희원 상무(삼일 PWC), 쇄 관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선출되었다. 오후 5시부터는 김영걸 교수의 사회로 학생 동아리 쥬끄박스의 공연, 기별 참가자들의 소개 및 사진촬영, 행운권추첨 등의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고, 연이어 각 연구실(LAB)에서는 뒤늦게 참석한 많은 동문들과 함께 랩별모임으로 돋독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규성 前 재경부 장관, 배순훈 前 정통부 장관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재부임



지난 3월 1일, 배순훈 前 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6월 1일, 이규성 前 재정경제부 장관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재부임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배순훈 前 장관은 1999년 봄 학기에 [경영전략 특수논제(부제:기업리스크 관리)]라는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1972년부터 1976년 KAIST의 기계공학과 부교수에서 대우중공업 이사로 자리를 옮긴지 23년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배순훈 교수 강의의 특색은 전통 경영학에다 실질적인 기업경영 경험을 더한 것으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을 받았음에도 28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배순훈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있는 중간관리자 육성이 목표”라며 “공부를 잘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가를 키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규성 前 장관은 1995년 3월부터 1998년 3월 입각하기 전까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금융공학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규성 교수는 '공부하는 관료', '국제금융통화 전문가'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IMF이전,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수학, 통계학, 컴퓨터이론과 첨단 재무이론을 결합한 혁신적 교육과정인 금융공학 MBA과정의 설립에 산파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1기 경제팀의 말형 역할을 무난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1999년 여름학기부터 [금융공학특수논제(부제: 금융산업과 위험관리)]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다.

## 매경-KAIST 최고지식경영자(CKO)과정

- 제2기 수료생 38명 배출



해 매일경제신문사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지난해 9월 말 개설한 CKO과정은 이번 2기 수료식으로 총 83명의 최고지식경영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수강생들은 지난 2월25일 입학한 이래 △뉴패러다임과 지식경제시대 △왜 지식경영인가 △지식공유문화와 인센티브시스템 구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전략 등 지식경영의 기본 이론과 대한투자신탁, 대림산업, LG정밀, 부즈앨런&해밀턴 등 각계의 지식경영 모범사례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다. 또 △한국기업 CKO와의 대화 △지식근로자와의 대화 등 패널토론수업과 논문 작성, 비즈니스 게임 등을 병행함으로써 지식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3기 CKO과정은 6월 말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8월 말에 개강할 예정이다.

매경-KAIST 최고지식경영자(CKO) 제2기 과정이 6월 3일, 14주간의 교육일정을 모두 마치고 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38편의 수료논문을 심사한 끝에 정영수 서통 사장이 가치경영과 지식경영과의 '상호 보완적 도입'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으며 이상윤 농심 부회장 등 4명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지식기반경제를 주도하고 각기관의 지식경영을 총괄할 최고책임자를 육성하기 위

## “환경 성적표지제도(ISO TypeIII 환경라벨링) 도입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 테크노경영대학원 환경경영/정책연구센터와 환경마크협회 공동 주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환경경영정책연구센터(센터장 안병훈)와 환경마크협회(회장 윤서성)는 5월 29일,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환경성적 표지제도(ISO Type III 환경라벨링) 도입을 위한 국제워크샵’을 개최하였다.

IMF 이후, 경제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문제는 한동안 관심 밖에 있었지만, 사실 환경에 관한 국제적 이슈는 국민경제와 기업경영에서 국가의 생존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제 7차 국제표준화기구(ISO/TC 207)의 총회(5월 29일-6월 6일)가 서울에서 열렸고, 아울러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샵에도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ISO/TV207/SC3 EL Secretary를 비롯한 스웨덴, 독일, 일본 등 Type III 제도를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각국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최근의 국제표준화 동향 및 각국의 도입현황을 발표하였고, 또한 2000년부터 국내 시행과 관련한 운영방법,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환경라벨링이 미치는 무역효과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더불어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는 빌딩의 그린화(그린빌딩제도, DFE) 개념이 어떻게 Type III의 한 형태로 확대 발전될 수 있는가를 선진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 SAP Korea(주), KAIST에 SAP R/3 소프트웨어 기증

-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산업공학과에 기증



독일 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벤더이자, 현재 전세계 최대의 ERP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인정 받고 있는 SAP Korea(사장 최해원)는 지난 5월 14일(금) SUPEX경영관(최종현홀)에서 KAIST의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산업공학과에 SAP R/3 소프트웨어를 기증하였다. 이날 기증식에는 최덕인 KAIST 원장 및 이진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산업공학과 염봉진 학과장, SAP Korea의 김정범 이사 등 여러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SAP R/3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기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리

엔지니어링을 돋는 토텔 솔루션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일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SAP R/3를 대학 강의에서 실습에 이용하기에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SAP Korea는 이러한 국내 대학 실정을 인식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SAP R/3를 이용할 수 있도록 KAIST의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산업공학과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기증하게 되었다. 앞으로 KAIST에서는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 생산 및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및 공장 설비 보전, 영업 및 유통, 인사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에 SAP R/3를 이용할 계획이다.

## 테크노경영대학원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 MBA 과정은 11월 8일부터 원서교부 시작

KAIST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입시요강이 나왔다. 그 중 테크노경영대학원 일반 석·박사과정인 경영공학전공은 오는 8월 2일부터 원서교부가 시작되며, MBA과정의 5개전공은 11월 8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한다. 1997년에 테크노경영대학원에 편입된 학사과정인 산업경영학과는 8월 9일, 11월 29일, 2000년 2월 1일(9월 입학)로 3차에 걸쳐 원서를 교부한다. (학사과정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학생선발과 042-869-2141~3, 4114, 홈페이지 <http://www.kaist.ac.kr>, 천리안: go kaist 참조).

학문적 탁월성을 중시하는 경영공학 석·박사과정은 과기원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모집하며 석사 40명内外, 박사 30명内外를 모집할 예정이다.

MBA과정에는 일반 MBA과정인 테크노경영전공(Techno-MBA)과 특수MBA과정인 경영정보전공(MIS-MBA), 통신경영/정책전공(Telecom-MBA), 금융공학전공(Fe-MBA), 환경경영/정책전공(Green-MBA)으로 나누어진다. MBA과정은 1998년부터 산업체 등에서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과 개인자격으로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 모두를 모집하고 있으며, 총 150명内外로 모집할 예정이다. MBA과정의 수학기간은 2년 전일제(Full-Time)를 원칙으로 하되,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소속기관과 관련된 주제로 논문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2년차 여름학기부터 당해기관에 복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2년차에 볼학기 또는 여름 학기동안 전공별로 해외교육(연수)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문의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학과 Tel: 02-958-3212~6, Fax: 02-958-3220)

### ■ 새 책 소개 [전자상거래원론],

#### [DATA MINING IN FINANCE]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이재규 교수와 그의 제자들인 최형림, 김현수, 이경전 동문들이 펴낸 [전자상거래 원론](법영사)과 김형관 교수의 [DATA MINING IN FINANCE](Sigma Consulting Group)가 최근 새로 출간되었다. [전자상거래 원론]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이론적 토대와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등장, 배경, 구성요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참고문헌과 관련 사이트를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DATA MINING IN FINANCE]는 영문판이며,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금융 및 경제예측지침서로 차세대 지식기반 예측 기법의 주류, 데이터로부터의 숨겨진 지식발굴, 주가·금리·환율의 차세대 예측기법, 21세기 지식경영 기반구축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 ■ 이재규 교수, 한국경영정보학회

#### 최우수논문상 수상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재규 교수는 지난 6월 5일, 광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식개발의 의사결정 모형생성기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김철수 교수(원광대), 송용욱 교수(경상대)의 공동 논문이다.

### ■ 제1회 실험실창업 경진대회

#### 한인구 교수팀 우수상 수상

지난 6월 17일~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실험실 창업 경연대회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 한인구 교수의 회계·재무정보시스템 연구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기업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자 의사결정을 돋는 기업신용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벤처사업화하기 위해 CST를 창업한 이 팀은 최첨단 기법인 인공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개발했으며, 이를 패키지 상품화해 국내 금융기관과 신용거래가 많은 일반 기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다.

### ■ 테크노경영대학원 취업지원실,

#### 취업 세미나 개최

지난 6월 4일(금),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세미나가 열렸다. 이종구 (월간) 리크루트(주) 편집장과 로이드컨설팅(주) 이기봉 대표를 초청하여 "국내외 취업 현황과 전망"과 "외국계 기업 취업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갖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MBA 학생 중, 개인자격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취업수요가 늘어난 시점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학교 정책적으로 취업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많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9월에도 외국계 경영컨설팅사의 취업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다.

### ■ ITSP 및 KT 과정 최근 소식

ITSP(SK-Telecom)과정에서는 4월 19일, GMD(관리자 육성과정) 9기가 입학하여 워크샵, 대전 KAIST의 현장학습, 배순훈, 경상현 전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초청강연 및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이재규 교수), 인터넷 신기술동향(강성렬 교수) 등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 또한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Univ. of San Francisco로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KT(한국통신)과정에서는 5월 21일, 1기와 2기의 수료식 및 입학식을 가진 최우수, 우수논문상 시상을 가졌으며,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워크샵으로 북한산 등반과 비즈니스 게임시간을 가졌다.

### ■ 1999학년도 석사과정

#### 통합 워크샵 개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99. 4. 2(금) ~ 4. 3(토), 주택은행 연수원(천안소재)에서 경영공학전공 석사과정 및 MBA과정 학생들, 교직원을 대상으로 '99학년도 석사과정 통합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각 전공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학생 및 교직원간의 일체감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통합 워크샵에서는 각 전공간의 체육행사 및 전공별 토의,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 컴퓨터그래픽 동아리 인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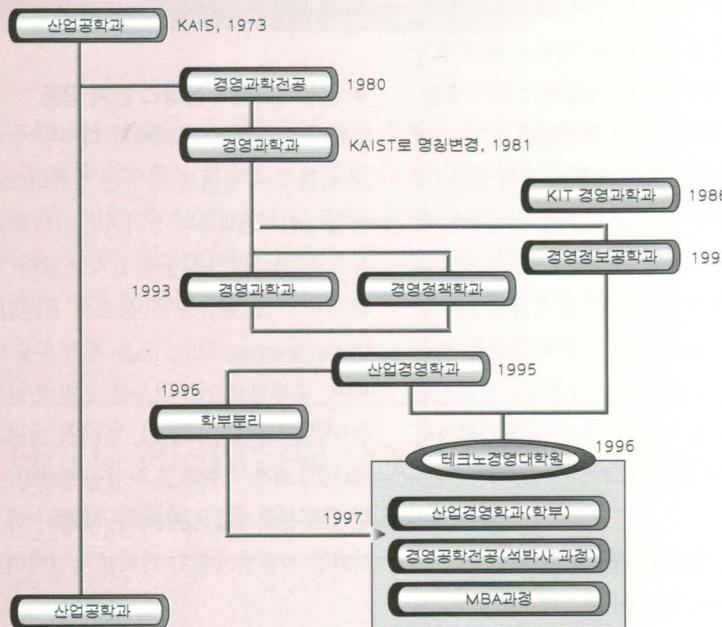
컴퓨터 그래픽과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법을 다루는 컴퓨터그래픽 동아리가 3월부터 정기적인 강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의내용은 포토샵을 시작으로 Flash, Dreamweaver, Wep page 제작 등을 다루며, 주제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강의한다. 동아리 회원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수강을 할만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작품전시회도 기획할 예정이다.

### ■ 제1회 석립가요제 열려

5월 28일, 음악동아리 쥬끄박스에서는 테크노경영대학원 홈커밍행사의 전야제 행사로 "제1회 석립가요제를 개최하였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서울캠퍼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트리움에서 펼쳐진 이 행사에는 학생, 교수, 직원이 대거 참여하여 작은 캠퍼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족같은 분위기로 대학원생활의 싱그런 웃음을 전해준 행사였다. 대상은 전산센타의 정병구, 금상은 테크노경영MBA 사무실의 노영아, 은상과 인기상은 경영공학의 대마왕팀이 차지하였다.

# KAIST 경영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총동창회 발족에 즈음하여

지난 5월 29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 아래 처음으로 홈커밍행사가 열렸다. 이 날은 1973년 이후 KAIST의 경영관련 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을 초청, 명실상부한 테크노경영대학원 총동창회가 결성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본 경영대학원의 뿌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비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KAIST 경영교육의 변천과정〉

했다고  
한다. 1980년

산업공학과 내에 경영과학전공이 생겼을 당시 기업인들을 위한 강의가 열려 높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것을 현재 MBA과정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내의 경우 사농공상의 문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를 읽는 눈과 경영에 대한 안목부족이 문제였으므로 기술을 아는 경영자, 경영을 아는 기술자의 양성을 위해 경영과학과가 신설되었다. 초기에는 그러한 필요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에 KIT(과학기술대학)가 KAIST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경영과학과에 학부과정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경영과학과는 경영과학과/ 경영정책학과로 나뉘었다가 95년 산업경영학과로 다시 통합되었다. 96년 산업경영학과의 대다수 교수진이 서울 홍릉캠퍼스로 옮겨와 서울분원의 경영정보공학과와 합쳐져 테크노경영대학원이 탄생했다. 이듬해인 97년에는 대전의 산업경영학과도 공식적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에 통합됨으로써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진주 대학원장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은 세계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해 문화/교과가 변화되고 있는 단계로써, 연구활동/교육서비스의 균형과 상호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현실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solution-based)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학생 구성의 경우 경영과학과의 초기 단계에는 일반대학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과학교 설립 이후 과학교/과기대 출신의 학생들이 많아져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교과과정의 경우 초기에는 OR 및 통계에 치중되었던 것이 점차 다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일반관리 및 global 교육과 금융, 정보통신, 환경등의 특수교과목들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KAIST의 경영분야는 초창기 흥륭 과학원의 산업공학과를 모태로 하여 시대적인 사회요구에 반응하여 여러 단계의 변천과정을 겪은 끝에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발족한 테크노경영대학원 총동창회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동문간의 소속감을 다지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졸업생 동문현황을 간단히 살펴면 그림1과 같으며, 이들은 산업체, 학계, 출연연구소 등 사회각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테크노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장석권 교수를 만나보았다. “[본 동창회 구성의 의의와 나아갈 방향] 이전까지는 박사졸업생들로 국한된 경박동창회만이 존재했으나 본 동창회는 KAIST 경영분야 (경영과학전공, 경영과학

과, 경영정책학과, 경영정보공학과, 산업경영학과 및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졸업생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확대조직입니다. 본 회는 각기 다른 조직, 배경, 문화를 가진 인물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창회장으로서 결속력 강화를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조속한 집행부와 이 사회의 구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본회의 조직화를 통하여 소그룹들의 활성화를 포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교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fund조성을 통하여 후배들의 장학사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우리 동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엘리트의식과 주체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탕 위에 KAIST 경영인으

로서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주는 비중을 인식하여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선후배 간의 교류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뿌리를 돌이켜보면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변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의 연결선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할 때에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원을 지향하며 21세기 경영을 선도하고자 하는 본원의 비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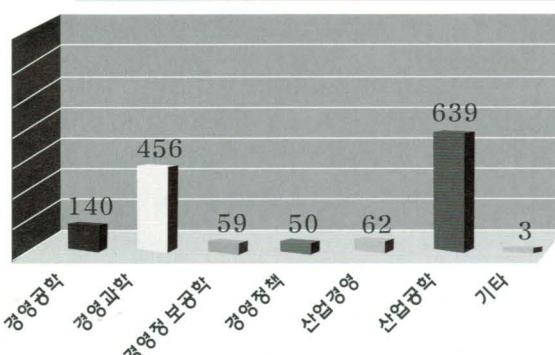
최덕현, 이성준, 최혜진 기자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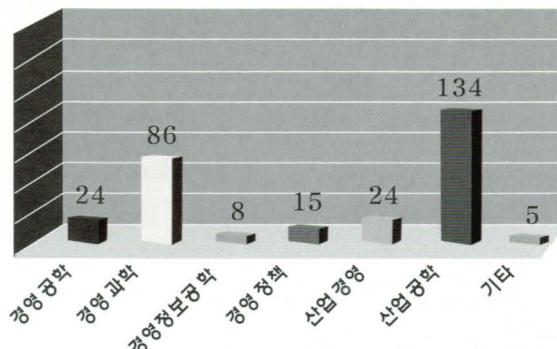
전체 동문 현황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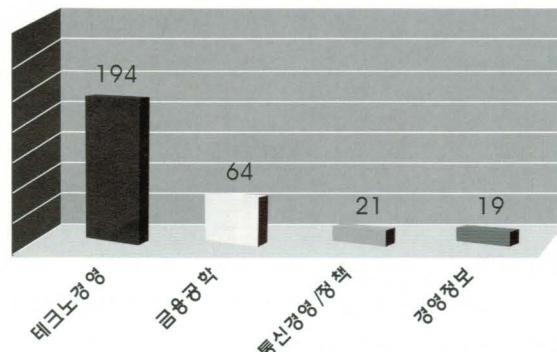
학과별 석사동문 현황 (단위:명)



학과별 박사동문 현황 (단위:명)



전공별 MBA동문 현황 (단위:명)





이 규 성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에 들어가 경제정책을 다루다가 정들었던 KAIST에 다시 돌아오니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정부에 있는 동안 교수님들을 비롯한 KAIST 가족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조언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경제위기는 6·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고 평가 될 만큼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은 -5.8% 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GNP도 1997년 약 1만불 수준에서 1998년에는 약 6,800불로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은 1997년 11월 2.6% 에서 1999년 2월 8.7% 로 상승하였으며 실업자수는 이 기간 동안 121만 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1998년에 7.5% 상승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의 어음 부도율도 1997년 11월 이후 1998년 9월 까지 약 0.5% 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1998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2~3 천 개의 업체가 도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경제위기를 갑자기 맞아 허탈과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작년 3월 정부에 들어갈 당시 과연 위기극복의 가닥을 성공적으로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재앙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경제의 재건에 합심하여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회복을 향한 탁월한 리더쉽이 있었으며 국민들은 소득의 감소·높은 물가 그리고 대량의 실업과 도산 속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경제회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병행하여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동안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1999년 5월말의 수치를 보면 외환보유고가 587억불에 달하여 외환 유동성의 위기는 다시 오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금리도 위기 이전보다 낮은 한 자리 숫자로 안정되었습니다. 환율도 1150~1200원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주가 지수도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실물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

이고 있습니다. 경기의 저점은 작년 4 / 4 분기에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1 / 4 분기에는 4.6 % 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1 % 이내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난 4월에는 7.1 % 로 낮아졌습니다. 많은 경제 연구기관들이 금년에 우리 경제는 경제 성장을 5 %,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 이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충실회화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의 전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부문에 있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재무구조의 건실화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기업의 핵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노 · 사 · 정 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정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의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을 통하여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개혁을 통하여 정부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경제 재건에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삼폐인을 터트릴 때가 아님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취에 자만하지 말고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 제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친 후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다 정리되고 자본금도 BIS비율 10 ~ 13 % 수준으로 제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 없는 튼튼한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과거와 같은 금융기법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부실화 될 것입니다.” 라고 말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은 외형적인

기초공사 즉 Hardware 의 개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알맹이를 채워 넣는 개혁 즉 Software 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기량을 키우는 개혁 즉 Wetware 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계 속에서 당당히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와 정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의 위기국면을 겨우 모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집단 이기주의 또는 지역 정서에 얹매여 안정을 해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와 정치 안정 없이는 경제의 발전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우리가 구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공정한 규칙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행동 양식으로 적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정서는 접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성장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어렵고 유럽,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불안 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 경향의 재등장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적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변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전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이러한 대전환을 제대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한용운 선생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바보라 하셨습니다. 기왕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다가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한다면 우리는 바보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F

## 인터넷 경매의 선두주자들

95년 처음으로 개설된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www.ebay.com](http://www.ebay.com))는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에 의해 98년도 최고의 웹사이트로 선정될 만큼 급성장했고, 그 동안 미술품 경매시장을 지배해온 소더비와 크리스티도 인터넷 경매에 진출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는 인터넷 경매의 대표적인 사이트 이베이([www.ebay.com](http://www.ebay.com))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경매([www.auction.co.kr](http://www.auction.co.kr))를 살펴보기자 한다.



◆ 이베이 ([www.ebay.com](http://www.ebay.com))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대표적인 이베이는 2백만 개가 넘는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다. 먼저 이베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분야별(골동품, 서적, 컴퓨터, 보석 등 1600개가 넘는다)로 정리되어 있는 구성이 마치 야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친숙한 느낌을 준다. 즉,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클릭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경매 아이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접속이 된다. 인터넷 경매에는 한 가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법 까다로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경매에 참가할 수 있고 각 경매에는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저 입찰가격 수량, 그리고 인터넷 경매의 특징이 입찰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제 실제 경매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jewelry/watch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시계에서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템을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소비자 가격이 \$6,500인 고급 시계가 \$1,225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현명하게 경매에 참가한다면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고 또한 흥미로운 입찰 과정을 즐길 수도 있다.

◆ 인터넷 경매 ([www.auction.co.kr](http://www.auction.co.kr))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인터넷 경매’의 페이지 구성은 이베이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즉, 모든 경매 아이템은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총 12,000개가 넘는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다. 경매에 나온 아이템은 컴퓨터에서 의류, 주식/채권, 티켓,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사이트 역시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경매를 만날 수 있는데, 즉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채팅 경매와 특정 상품에 대해서 경매 운영자가 설정한 파격적인 경매상한가(2만원 이내)에 도달하는 즉시 경매가 자동 종료되는 행운경매 등이 그것이다. 이 사이트는 하루 평균 3백건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객 수도 2만명을 웃돈다.

인터넷 경매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되는 참가의 용이성과 함께 익명성도 보장되고 경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흥미로운 입찰 과정 때문에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그냥 재미삼아 응찰했다가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자신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또한 경매의 특성상 반드시 경매 가격이 일반적인 구입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 합리적인 가격일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F**

이승창 기자



# 가치경영의 의의

한 인 구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1) 가치경영의 의의
- 2) 가치경영의 평가지표: EVA
- 3) 가치경영과 지식경영
- 4) 가치경영을 위한 경영전략

## 1. 기업의 목표

기업의 목표는 flow로 보면 이윤의 극대화이며 stock으로 보면 가치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이란 일정기간동안 창출된 가치 또는 가치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업의 총가치는 주주가치와 채권자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자가치는 대차대조표상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총가치에서 고정된 가치인 부채를 차감한 잔여가치가 주주의 가치가 된다. 채권자가치는 고정된 것이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본시장이 효율적이어서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잘 반영 되어 있다면 기업의 목표는 주가의 극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전략도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2. 물량경영에서 가치경영으로

IMF체제이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물량중심의 경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전략목표는 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 재계서열, 계열사의 수 등을 높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경제성장 및 수출을 주도하고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였으며, 거대한 기업 군인 재벌은 정부의 경제파트너로서 경제정책의 입안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총자산에 의하여 서열을 정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하는 한편 5개 재벌 총수 청와대 오찬, 10대 재벌 총수와 경

제장관과의 조찬모임, 30대 재벌 기조실장과 경제수석과의 간담회 등 물량에 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순위를 정하였다. 31대 그룹 총수의 목표는 오로지 30대 그룹 총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부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을 인위적으로 막고 기업의 위험을 정부(결국은 국민)가 부담함으로써 대기업은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물량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 규모가 기업의 위상 및 가치를 결정하는 정치경제구조에서 이익의 창출과 자기자본의 증대보다는 차입에 의한 규모확대라는 지름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은 부작용도 있었으나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화되는 단계에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선진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더이상 보호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시장경제원칙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시장경제원칙하에서 기업의 목표는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의 전략 방향은 물량경영에서 가치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 3. 가치경영의 실현

기업의 목표가 가치의 극대화이므로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활성화하고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업은 중단 또는 매각

하는 사업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의 평가지표는 물량경영의 평가지표인 매출액, 총자산, 성장율, 시장점유율 등에서 가치경영의 평가지표 EVA(Economic Value Added)로 전환되어야 한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및 세금을 차감하고 기업이 창출한 순부가 가치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가치중심으로 되어서 외형이나 규모가 큰 회사 또는 기업인수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회사가 지상에서 스타로 평가되고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경제적 순부가 가치인 EVA를 많이 창출해 낸 회사의 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위상이 정해지는 정치경제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EVA를 많이 창출한 기업 및 경영자가 스타로 부상하고 경영자의 목표는 30대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대 EVA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내에서는 경영자 및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EVA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물량경영시대에서 경영자의 평가는 외형과 성장율에 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많은 차입을 하고 과도한 부채비율을 초래하게 되었다. 가치경영에서는 경영자는 EVA에 의하여 평가되고 각 구성원이 EVA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동기부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F

- 1) 환경영향의 과제
- 2) 환경영향과 기업의 경쟁력
- 3)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 4) 환경친화적 생산체계와 공급체계
- 5) 환경회계와 성과평가



##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이 승 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환경친화적 제품이란 원재료의 채취와 가공으로부터 부품과 구성품, 완제품의 가공, 조립, 포장 등 생산과정, 제품의 유통과 판매, 소비(또는 사용), 폐기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적은 제품을 말한다. 흔히 환경(친화)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새로 투입하여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오염물과 폐기물을 환경으로 배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의 환경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환경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환경보전과 오염예방을 위하여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합쳐져서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제도(Eco-labeling)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에 일정한 표시를 가능하게 인증하는 제도(Type I)가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여 기업의 독자적 환경성 주장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Type II)과 모든 제품에 환경성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Type III)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른 경우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시장을 잊게 되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로 소비자(고객)의 환경프리미엄 지불의사, 둘째로 제품의 환경성 우위

에 대한 신뢰, 세째로 경쟁자에 의한 모방관련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가 존립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관련 무역장벽은 노예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수입규제와 함께 예외를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문제에 일찍 눈을 뜬 선진국의 음모로 보는 견해도 있고, 바람직한 발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결과는 마찬 가지이다. 우리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신제품개발 분야에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가공, 조립 등 제조공정과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려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자는 DFX(Design for X: 여기에서 X는 고려해야 할 모든 것, 예를 들면 Assembly의 A, Manufacturability의 M, Supply Chain의 SCM, Disassembly의 D 등)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여기에 새로운 X로 Environment의 E를 넣은 것이 DFE이다. 이는 기존 제품개발과정에 제품의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고려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려는 접근방법이다. 대부분의 선진기업들은 이러한 기법으로 제품의 재사용, 재조립, 재제조,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록스사에서 복사기를 재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 홍보하는 지속가능 제품개발(Sustainable Product Development: SPD) 노력이다. 제품의 경쟁력보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더욱 중시하는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인 시장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태엽을 20초간 감으면 40분간 작동하는 라디오, 폐달을 밟아 가지만 300Kg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인력 자동차, 면화의 다양한 천연색을 되살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면화를 염색 없이 직조하여 만든 면셔츠 등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으며, 중국에서는 누에의 종자개량으로 염색이 필요 없는 비단을, 호주에서는 천연색털을 가진 양을 키워 염색이 필요 없는 모직의 생산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제품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F





## 지식관리시스템 아키텍춰

김 영 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지식관리 시스템이란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시스템이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의 지식자산에 대한 인식, 조직의 지식 평가/보상 체계, 지식공유 문화 등 조직차원의 인프라와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각종 소프트웨어도구 등 정보기술 차원의 인프라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지식을 저장하는 지식 베이스는 사전에 정의된 조직의 지식스키마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베이스가 원시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유된다면 지식스키마는 원시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사전 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비유될 수 있겠다. 지식스키마 내에는 개별 지식의 유형(문서, 모델, 동화상, 등), 중요도, 동의어, 주요 인덱스, 보안단계, 및 생성-조회-갱신-관리 부서 정보 등과 전사적인 지식분류체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지식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은 물론 조직내 다른 정보시스템 서버에 저장되어 있거나 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문가의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의 위치를 파악하고 원하는 지식을 검색하거나 전문가와의 연결을 원할 때는 지식 맵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인터넷 상에서의 각종 사이트 방문시처럼 원하는 지식사이트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찾아 가거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려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식의 검색을 대행시킬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지식을 창출하여 입력하고, 조회, 편집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의 효과적인 지식관리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식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외부의 환경적 요구와 조직내부의 지식을 일치시킴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통합은 개인지식, 팀 차원의 지식 및 조직차원의 지식 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 시스템들과의 유기적인 통합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적 통합은 조직 외부의 정보 또는 지식

- 내외부 정보시스템들의 데이터, 정보에서부터  
지식에 이르기까지의 인터페이스
- 지식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지식베이스와 지식스키마
- 사용자의 지식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맵
- 개인간 또는 조직간의 지식교류를 위한 다양한 통신채널
- 사용자의 지식활용을 위한 각종 문서 및 프리젠테이션 도구들과의 통합
-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GUI기능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핵심요건으로는 GUI를 통한 사용용이성, 24시간 사내외의 가용성,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동갱신, 개방-분산 환경의 수용, 복수 검색 모드(초보자, 전문가) 및 편집의 용이성, customization 등의 기능들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내부의 지식과 조직외부의 지식을 유

의 주요 원천인 외부 공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WWW 등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업체나 전략적 파트너, 공급업체 또는 고객업체 등과의 통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 외부적인 통합이 사용자의 지식활용과 일치할 때, 조직의 지식활용능력이 극대화 될 것이다. F



## GLCP

### (The Global Leadership Certificate Program)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 기업 환경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제화되는 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서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꿈꾸고 있는 우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과 공부 이외에 이러한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GLCP(The Global Leadership Certificate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 교수인 Betty. Chung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을 급변하는 사회 및 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의 국제화된 경영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GLCP 프로그램은 4개의 세부 영역에서 총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모든 영역을 다 수강할 수도 있고 각자 관심이 있는 세부 영역만을 수강할 수도 있다.

GLCP를 구성하는 4개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The Globalization Lectures Forum

- Global/International Focused Classes
- Global Skills(workshop and/or Global immersion combination)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lasses

즉, 각 영역은 국제화된 경영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분야에 대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회화 및 작문, 리더쉽, 국제생산경영, 국제 금융, 마케팅, 회계, Cross Cultural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LCP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과목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KAIST 특유의 Academic한 측면과 동시에 실제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부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GLCP 프로그램 중 눈길을 끄는 과정은 Summer Global Immersion Program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름 방학 중 2~4주 간에 걸쳐 미국을 여행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기업의 특성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미국 기업의 경영자와

MBA school 의 교수진으로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편 GLCP 프로그램은 세미나 형식의 비정기적인 Globalization lectures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 consulting skill, M&A 등 - 이 기업 현장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Betty. Chung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학생들에게 남겼다.

In order to compete and to be successful in the next millenium, students need to be educated globally. And this is an opportunity that students can begin to experience global education which will help them not only as international managers but individuals. And my hope and my wish for them is to take part in some kind of program, if not this program but another program, to broaden their perspective. **F**

이승창 기자

GLCP



## 하나로통신(주)의 윤경림 박사를 만나고 와서...

(이력)

1986-1988년 KAIST 경영과학과 석사과정

1988년 주데일콤 입사

1992-1997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과학과 박사과정

1997년 9월 하나로통신(주) 사업기획 팀장

1998년 12월 사업계획 실장

이번 호에서는 국내 시내전화사업의 신규주자로 통신업계에 새바람을 불고 온 하나로통신(주)의 윤경림 박사를 만나보았다. 현재 하나로통신(주)은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윤경림 박사는 과장에서 임원까지 초고속 승진으로 유명해진 바 있다.

- 먼저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실무자와 임원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다시 데일콤으로 복귀한 뒤 시내전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발전되었고 하나로통신(주)이 새로운 서비스를 조속히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임원으로 발탁된 것 같습니다. 임원과 실무자의 차이를 말하자면 과거에는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의사결정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통신경제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받으셨는데요, 현재 실무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대학원시절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상호접속요금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 국제정산요율 분쟁 등 통신경제정책에 관련된 연구를 게임이론에 기반하여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하나로통신(주)이 직면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 경쟁에 적용 가능한 것 이었고 통신 사업이 아직 정부의 규제 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공부한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학교를 떠나서 본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모습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대부분은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특히 통신사업에서는 복잡성과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석적인 시장조사, 수요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행은 학생들에게 현실의 많은 모습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산업계와 많은 공동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규모가 큰 세미나나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포럼이나 연구회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규모 연구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수용할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보통신업계에도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신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간의 교류가 없는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F

정영조, 최덕현 기자

# 김영배 교수의 혁신 전략 및 조직 연구실 (SOFI)

이 성 준 경영공학 석사과정



혁신 전략 및 조직 연구실(Strategy and Organization for Innovation Lab.: SOFI)은 SOFI(철학에서 신은 곧 만유라는 범신론(汎神論)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만큼이나 신비스럽고 철학적이지만, 경영 및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혁신을 위한 경영 전략과 조직 설계를 다루는 연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실의 연구 관심 분야는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의 기업 전략 및 경영조직체계,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조직설계, 창의적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계 및 연구인력관리, 기업의 조직 혁신 및 조직문화 변화, 산업의 전략군 분석, 신제품개발 전략과 학습 조직의 구축 등입니다.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이신 김영배 교수님은 리더십과 조직관리, 경영 전략론, 신기술 동향, 신상품경영, 조직설계론 등의 강의를 하시며, 지식경영 관련 프로젝트 외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쁜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일대일로 해 주실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과 세심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학생들과 탁구를 치면서 연구실의 화합을 다지기도 하십니다. 한편, 학생들은 MBO (Management By Objective)에 의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율을 보장 받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받습니다.

연구실의 분위기는 적당한 인원수로 산만하지 않으며, 후배가 편

할 정도로 선배들이 잔심부름은 자제하며 자기 일은 알아서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이며, 대부분이 운동을 즐겨 탁구나 수영, 테니스 등을 통해 연구로 인한 체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또한 공동랩 세미나 및 연구실 세미나 등을 통해 서로 서로 연구에 대한 자세를 배우며, 연구실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그동안 Management Science 등 해외논문에 10여편, 국내논문에 20여편을 발표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실을 거쳐간 선배들은 25명이며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삼성, 한국통신 등의 대기업에 계신 선배, 메디슨 등 벤처에 계신 선배, 컨설팅 트, 유학 중인 선배, 육군 소령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실에 대한 애착이 강해 중요 행사 때는 함께 모여 서로 못다한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 SOFI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거리낌없이 방문하시고,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다수의 저널과 책들도 지식 공유를 위해 열심히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F

## 테크노에서



조 선 형 교수

## 학력 :

Temple University Industrial Management MBA (1963)  
 Wharto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Applied Economics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operation  
 M.A. (1965)  
 University of Pittsburgh Computer Science & Educational  
 Research Ph.D (1970)

## 주요경력 :

1973 - 1979 Pennsylvania주 교육부 차관  
 1979 - 1981 Massachusetts 주립대학 운영부 부총장  
 1993 - 현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교수  
 (강의: 전략정보시스템, 경영정보고급논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은 독특하다. 첫째는 일 (Work)을 사랑할 줄 아는 자세와 훈련이 되어 있다. 숙제(Work load)가 많아도 거절하지 않고 착실히 소화하는 배움의 자세. 둘째는 많은 양의 독서와 기술 습득의 과제를 팀워크로 해소한다. Collaborative Learning을 실행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KAIST 학생들의 자질과 자세가 창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배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 홍농 지역은 Silicon Valley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 모셨습니다.



차 근 호 교수

## 학력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77)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1981)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경영학 박사

## 주요경력 :

1993~현재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1994~현재	삼성그룹 환경영향자문 교수
1994~현재	코오롱 그룹 환경영향자문 교수
1996~현재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산업환경문제 연구회 자문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교수
1999~현재	(강의: 산업생태학 및 환경관리체계)

“1997년도 말 IMF한파가 우리를 급습한 시점, 본인은 환경영/정책연구센타 겸직교수로서 KAIST와 인연을 맺어 Yesterday지향적인 KAIST ECO-MBA 학생들과의 학습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장벽이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조사하였다. 새로운 장벽이란 다름 아닌 노동을 포함한 경영의 사회적 투명성이다. 이러한 국제흐름 속에서 결합재무제표 회계와 구조조정만으로 다시는 IMF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ECO-MBA는 이점을 염려한다.”

#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새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 함용덕 교학과

(담당업무) 검수, 관재, 강의 실 관리, 동아리 및 각종 행사 지원, 학생생활상담 등



■ 정병구 전산센타

(담당업무) A/V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이혁재 재무정보실

(담당업무) 재무정보실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증권시세 DB, 모의 트레이딩 시스템 등

1978년 4월 KAIST에 입사, 20년 근속 상 및 모범직원에게 수여하는 원장상을 2회 수상하였으며, 상금은 원의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여러 부서에서의 다양한 업무의 경력뿐 아니라, 함께 일해온 동료들로부터 항상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어 서울 대전간의 업무협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날마다 규칙적인 체력단련으로 건강미가 돋보이며 근면, 성실, 인내, 노력으로 매사에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 최서영 교학과

(담당업무) 학위논문, 자격시험, 학사예산, 교육지원, 회의 운영 등



■ 최미영 MBA 전공사무실

(담당업무) 학과 행정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수원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MBC 아카데미 방송기술과정을 마치고, 1995년 케이블 TV 음악방송 채널 KMTV에 입사하여 3년 5개월간 사운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경영 관준공 이후, 더욱 A/V장비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뽑힌 그는 또한 지난 5월 28일, KAIST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 석립가요제에서 막강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동서증권(주) 정보기술부에서 상품매매 트레이딩 시스템, 국제딜링 Back Office 시스템, 외국인 해외투자 시스템 등의 업무에 참여했으며, 나라정보기술(주) 솔루션사업부에서 Broker 선물/옵션 시스템 업무에 참여하는 등 금융분야 프로그래머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황애경 교학과

(담당업무) 국제협력 및 대외홍보, 외국대학과의 학생교환 프로그램 지원, 기타 제반의 글로벌프로그램 참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부모님을 따라 중, 고교, 대학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탓에 영어에 매우 능통함. 특히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파악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입사하자마자, 직면했던 많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한국에 귀국한 후 호텔에서 guest relations officer로서 2년간 활동하였고, 국제협력 쪽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어 앞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성격은 매우 활발한 편이고 환경 적응에 강한 편이다.

충남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AIST에 입사, 차분하면서도 꼼꼼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직원. 정보전자공학부 교학과, 총무과, 재료공학과 전공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발령받은 지, 몇 달이 채 안되어 모든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학생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행정파트의 분위기메이커로서 한몫을 톡톡히 한다는 평을 듣는다.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입사, 사회생활 새내기이지만,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조성될 국제화팀의 한 멤버. 고교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고 영어회화에 능숙한 그녀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CSFB (Credit Suisse First Boston)Bank에서 인턴사원 경험을 가지고 있다. .

#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의 새로운 시작

김 소 형 경영공학 석사 99



약력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  
고려대 심리학과 졸

내 삶을 찬찬히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예고를 진학할 때는 음악을 전공할 것인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대학을 갈 때에는 10여년 이상 해 온 바이올린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대학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다. 이러한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던 것은 나의 성격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즐긴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새로움에 대한 중독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도 나에게 또 다른 새로움의 의미를 주는 곳이다. 여느 대학원과는 달리 다양한 전공을 가진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여러 협업경험을 가진 MBA 학생들과의 만남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 입학하기 전에는 KAIST가 굉장히 삭막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내가요제, 음악콘서트, 매주 영화감상 등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훌륭하신 교수님의 성의 있고 열성적인 강의, 연구분위기에 너무 어울리는 흥륭 교정, 멋진 강의실, 그리고 다양한 부대시설은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중독성(?)을 조장한다. 1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육여건에 대해 느낀 바와 비교해 볼 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수준이라면 굳이 유학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대부분의 기숙사 생활로 인해 거의 24시간 같이 지내게 되는 특수한 환경은 주변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거의 가족같은 느낌을 주어 학교생활을 더욱 신나게 한다. 학생들의 진솔하고 학구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

하는 그 마음가짐들을 느낄 때, 아직 학교에 입학 한지 6개월도 안되는 새내기지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모교로 느껴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연구실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로 인해 아직 모르는 선배님들이 많고, 경영공학과 MBA 학생들 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학생들 간에 상호교류가 늘어나 서로의 학문에 대한 지식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공유한다면 테크노경영대학원 문화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느끼는 것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이라는 나의 또 하나의 선택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학부전공이 달라서 과목들을 배우는데 힘도 들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영역을 헤쳐나가는 것은 나의 삶에 또 하나의 의미를 준다. F

## 2월 원내총무 모두 AIM 동문



강창희 의원 손세일 의원

4월 12일 자로 국민회의의 원내총무에 5기 동문회장인 손세일 의원이, 자민련 원내총무에 6기 강창희 동문이 취임하였다. 그간 시중 은행장의 대부분이 AIM 동문이었던 점과 더불어 이번 정치권의 AIM 동문 진출은 은행장이나 원내총무 진출을 위하여는 AIM을 반드시 수료하라는 신종어를 탄생시킬 듯...

## 10기 부부동반 가든파티



10기 수강생들은 최덕인 원장의 초청으로 5월 7일(금) 오후 6시부터 원장공관에서 부부동반 가든파티를 가졌다. 수강생들은 오전의 컴퓨터실습과 이진주 대학원장의 정보화교육으로 정보마인드를 새롭게 한 배우자들을 대동하고 성대한 만찬을 하며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이후 김영걸 교수와 한인구 교수의 환상적 사회로 진행된 AIM 전통의 '빼반짝반짝' 게임과 '여보여보' 게임 등의 친목시간을 통하여 동문간의 우정과 부부간의 애정을 함께 확인하였다.

## 10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5월 19일 (수) AIM 10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테크노경영대학원 AIM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재규 교수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세계의 정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LG유통의 강호정 상무보, 서울은행의 방광석 이사, 유종현 삼성 상호신용금고 대표가 각각 1등, 2등, 3등을 수상하였다.

## 3기 총동창회 출범

AIM 총동창회는 5월 26일 (수) 신라호텔에서 회장단 조찬모임을 갖고 총동창회장에 신복영 서울은행장, 총동창회총무에 유석현 동인상호신용금고 회장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총동창회 회장단은 AIM 교수진으로부터 SBS드라마 카이스트 소개를 받고 즉석에서 협찬 지원을 약속하여 AIM 동문의 모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 AIM 동문 동정

- (2기) 권경현 동문 교보생명 대표이사 전무 승진  
(3기) 박성욱 동문 보험개발원장 취임

- (4기) 문현상 동문 종합금융협회장 취임  
(8기) 임성락 동문 국은투신운용 대표이사 선임

### AVM 제3기 모집, 6월 21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

AVM 제3기 모집 일정이 확정되어, 원서교부 및 접수가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연락처는 [Tel] 02-958-3691 [E-mail] [avm@kgsm.kaist.ac.kr](mailto:avm@kgsm.kaist.ac.kr)

### AVM 제2기 실리콘밸리 해외연수



AVM 제2기생 등 25명은 지난 5월 23일(일)부터 5월 30일(일) 까지 1주일간 AVM 교육과정의 하나로 계획된〈실리콘밸리 및 LA 지역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종문 회장(Ambex Venture Group), William Miller 교수 (Stanford 대학), Ike Lee사장(Lee Technology Consulting), 최원길 사장(GAN Semiconductor), 이경훈 사장(NeXperience), 이윤식 지사장(KTB) 등의 특강이 있었고, 실리콘밸리 탄생의 요람인 Stanford 대학, 미국 최고의 IPO 전문 법률회사인 Wilson Sonsini, 그리고 한국계 벤처기업인 AIO, Silicon Image, Xylan과 현대전자 및 삼성물산 미국지사를 방문하였다.

### AVM 엔젤펀드 창립총회 및 제 1차 엔젤페어 개최

최고벤처경영자과정 제1기 수료생과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KAIST-AVM 엔젤펀드가 7억1천만원의 펀드 출자를 완료하고, 6월 4일, 오후 4시에 엔젤투자조합(회장 강중길) 창립 총회 및 제1차 엔젤페어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1차 엔젤페어에서는 3개의 투자요청기업에서 각각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2건에 대해 엔젤펀드에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 2기 대덕 워크샵 및 Wrap-Up 워크샵 개최(사진)

3월 26일(금)~27일(토), 호텔롯데 대덕에서 개최되었던 AVM 제2기 워크샵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1박 2일 일정을 잘 끌마쳤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KAIST 신기술 창업지원단 및 인공위성센터 방문에 이어, 추준석 중소기업청장과 김수동 특허청장의 특강 등이 있었고, 금요일 저녁에는 회사소개 및 친목의 시간이 있었다. 한편 지난 6월 12일(토)에는 AVM 과정 1-2기 합동조찬 세미나를 겸해, 그간 AVM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하는 Wrap-Up 워크샵이 서울 Novotel Ambassador 호텔에서 열렸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민화 메디슨 회장, 남진우 콤텍시스템 대표이사, 그리고 책임교수인 배종태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